

“단결! 단결!” 승리를 이끈 그날의 합성 대기업 제과점 진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시장 잠식을 보다 못한 제과점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에 나섰다. 2월 12일 제일제당의 시장 확산 중단이라는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어 낸 힘은 ‘제과인의 단결’ 바로 그것이었다.

■ 글 / 박종선



▲ 2월 9일 서울역에서 있었던 제일제당 제과점 진출 저지 규탄대회

214개 점포로 동결 ... 제일제당 ‘드디어 백기’

제과인의 단결된 힘이 제일제당의 베이커리 시장 장악 야심을 무산시켰다.

대한제과협회(회장 권상범)는 2월 12일 제일제당(회장 손경식)으로부터 그동안 물의를 빚은 점을 사과받는 한편 ‘뚜레쥬르’ 점포를 현 수준인 214개에서 동결하고 자연 소멸되는 점포 감소분도 증설하지 않으며, 앞으로 냉동생지 사업에만 주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 각서를 작성해 교환했다. 아울러 합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공증을 마쳤다.

이로써 제일제당이 96년 12월 베이커리 시장에 진출한 후 97년부터 대대적인 점포 확산을 꾀해 제과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했던 ‘뚜레쥬르’ 문제가 4년여만에 해결됨으로써 제과인들은 그동안 애써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지키게 됐다.

이번 제일제당의 시장 잠식 저지는 제일제당의 기업 윤리 상실, 약속 불이행, 시장 잠식 등에 맞서 제과인이 분연히 일어서 얻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을 팔아 성장한 제일제당이 베이커리 시장에 진출해 제과점의 목줄을

■ 합의 각서 주요 내용 ■

1. 제일제당은 뚜레쥬르 가맹점을 현 수준인 214개에서 동결,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다.
2. 자연 소멸되는 가맹점이 있을 경우에도 그 감소분을 보충하지 않는다.
3. 제일제당은 앞으로 원료(냉동생지) 공급 사업에 주력한다.
4. 양측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상호간 비방하는 행위를 중지한다.

되는 행위는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는 당위성이 제과인들의 투쟁을 있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

또 제일제당이 제과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96년 '앙브레뜨'란 상호로 2개의 시범 점포를 개설한 바 있는 제일제당은 사업 초기 냉동 생지의 해외 수출 및 국내 베이커리 업계 공급이 주목적이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제품 테스트 점포와 자사 명퇴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 차원의 소수 점포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점포를 확산해 진실성이 의심받을 때 수차례에 걸친 대한제과협회(이하 협회)의 '제일제당 베이커리 사업 철회 요청'에 대해서도, 제일제당은 여전히 앞서의 사업 취지를 되풀이 하며 자사 명퇴자들의 생계 대책 차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더구나 97년 10월 뚜레쥬르 1호 가맹점을 개설한 이후 대대적인 점포 확산을 꾀하는 등 베이커리 사업을 계속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업계를 대표해 협회는 작년 12월 2일 제일제당 가맹 사업 저지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투쟁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고진곤 부회장과 협회 이사인 고려당 김지정 사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아울러 이덕주 경기도지회장, 양도희 부산광역시지회장, 윤주경 대전광역시지회장, 김용관 광주광역시지회장을 부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가맹 사업을 중지하라는 공문

을 발송함으로써 투쟁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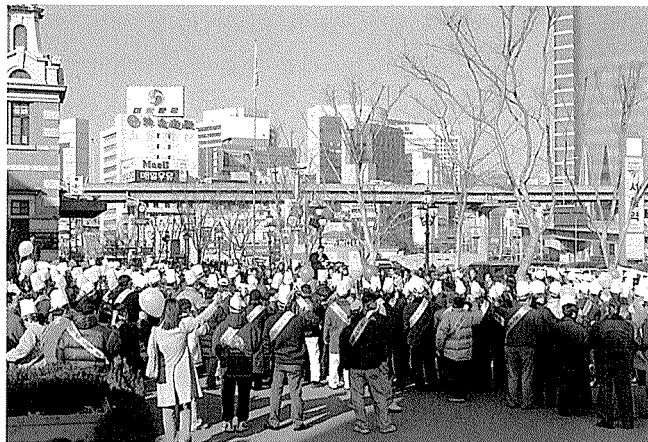
협회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것은 여의도의 삼도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갖추면서이다. 올해 1월 27일 열린 정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식 발족한 비대위는 다음 날인 28일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제당을 공정거래법과 독과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투쟁의 신호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이은 협회의 투쟁은 순가빠게 진행됐다. 1월 29일에는 투쟁 내용을 알리고 일반인의 동참을 위한 안티 제일제당 사이트(www.anticj.co.kr/www.anticheijedang.com)를 개설했다. 같은 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제일제당의 부당성을 알리고 생존권 확보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그 결과 1월 29일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에 제일제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이 게재돼 협회의 투쟁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공정위 제소 및 신문 광고 투쟁 전개

이어 협회는 1월 31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제일제당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제일제당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국에 있는 제과 대리점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4단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제일제당의 방해로 동아일보에는 이미 계약된 광고가 실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일제당은 일간지에 공정거래위 제소 사실과 광고가 게재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월 31일 협회에 협상안이 제시된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제일제당의 공문은 발신인 주



▲ 서울역 규탄대회와 명동성당까지의 가두 시위는 제과인의 단결을 대내외에 과시했으며 대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해 향후 투쟁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됐다.



▲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창립 총회에 참가해 우호 단체와의 연계 투쟁을 확대했다.



▲ 시장 확산 중단 내용을 담은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침으로써 마침내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소가 본사가 아닌 구로 공장 베이커리 사업부로 돼 있고 대표자 명도 누락돼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의심되는 것이었다. 아울러 제일제당은 아직 협회와 협상 모임이 결정된 바 없는데도 언론사에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니 기사와 광고 게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면에서는 협회의 언론 홍보에 대한 방해 작업을 펼쳤다.

이에 2월 2일에는 친목단체인 서울시지회장협의회가 모임을 갖고 전날 제일제당이 전개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 성토했고 설날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국 제과인의 서명 운동과 플래카드 부착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서명 운동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과 플래카드 부착 등 투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비대위의 김지정 공동 위원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2월 3일과 4일 서울역 앞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성명문이 담긴 전단

1만장을 배포하고 '제일제당의 모든 제품은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는 구호를 외치며 불매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대한매일신문 4일자에 광고를 게재해 거리와 신문 지상에 제과인의 주장을 알리는 양동 작전을 펼쳤다.

2월 7일과 8일에는 지회·지부별로 서명 운동 작업이 진행됐다. 이와 동시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제일제당은 자폭하라'는 내용으로 미리 배포된 플래카드를 제과점들이 점포 전면에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제일제당의 시장 진출이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면서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불길을 지켰다.

서울역 규탄대회 500명 참가 단결력 과시

2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일제당 제빵소매업 진출 저지 규탄대회는 이번 승리를 이끌게 한 기폭제였다. 500여명이 모인 이날 대회에서 협회는 평화로운 제과인의 삶의 터전인 '제과나라'를 짓밟는 제일제당을 '제일네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응징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실시해 시민들의 호응과 동참을 유도했다. 이날 500여명의 제과인들은 서울역 행사를 마친 뒤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며 제일제당을 규탄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날 규탄 대회는 TV와 각종 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SBS에서는 8시 뉴스에 제과점들이 대기업인 제일제당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앞서 MBC도 저녁 7시 뉴스에서 규탄 내용을 보도한데 이어 13일에는 경제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일제당의 시장 진출에 따른 쟁점 사항과 협회의 투쟁 내용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관심과 여론을 형성하는 기반 조성에 성공했다.

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11일에는 국회의원회에서 열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창립 총회에서 제일제당의 시장 잠식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외부 단체와의 연계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제과인의 기부금 모금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2월 2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 전진대회에 2000여명의 제과인이 참석해 제일제당을 규탄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가기로 했다.

협회의 투쟁에 크게 위협을 느낀 제일제당측은 지난 2월 12일 더 이상의 점포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당일 양측은 합의 조정을 거쳐 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권상범 대한제과협회 회장과 문성기 제일제당 부회장이 비대위 사무실에서 만나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범무법인 총정' 공증을 거친 뒤 합의 각서를 교환했다.

합의 각서

제일제당주식회사는 제빵소재질(뚜레쥬르) 개선 및 혁신으로 제과업체에 용의를 갖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대한민국제과협회와 사과드리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제과협회와 제일제당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일제당주식회사는 빵료(냉동생지) 공급사업에 주력하고, 뚜레쥬르가맹점을 현수준인 214개에서 동결하여 더 이상 증설하지 않으며, 자연소멸되는 뚜레쥬르 가맹점이 있을 경우 그 숫자만큼 가맹점 숫자를 증대 하고 이를 증설하지 않는다.
2. 양측은 본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뚜레쥬르 가맹점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비방하는 내용의 언론홍보,성명서,광고, 인터넷사이트,플래카드 부치행위,광고대회,발식 대응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상호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양측은 향후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합의사항에 관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문을 각각의 보관하기로 한다.

2000년 2월 12일

대한제과 협회
회장 권 상현

제일제당주식회사
대표이사 손경석

▲ 뚜레쥬르 점포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냉동 생지사업에만 주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언론 홍보, 성명서, 광고, 펼기대회, 플래카드 부착, 법적 대응 등의 행위를 중지할 것도 합의했다.

이번 승리는 제과인들의 단결력이 이끌어낸 성과이다. 하루 단위로 숨가쁘게 전개된 투쟁 일정에 발맞춰 제과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한 결과 20여일만에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다. 또 이번 결과는 아무리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이지만 중소 고유 업종인 베이커리 시장을 대기업이, 그것도 지금까지 제과점에 원료를 공급한 덕에 성장한 업체가 소비자의 생존권을 뺏겠다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합의 각서에는 제일제당이 앞으로 원료(냉동생지) 공급사업에만 주력하고 뚜레쥬르 가맹점을 현 수준인 214개에서 동결하여 더 이상 증설하지 않으며, 자연 소멸되는 가맹점이 있을 경우에도 감소분을 증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또 양측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뚜레쥬르 가맹점과 관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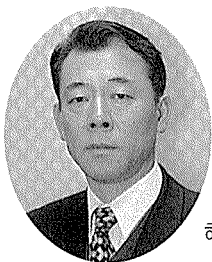
제일제당 점포 동결 제의해 투쟁 승리 거둬

이로 인해 국민과 여론이 제과점의 투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것들이 제일제당을 크게 압박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제당은 그동안 지켜온 깨끗한 기업 이미지에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결국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 제일제당이 시장 확산을 포기함으로써 제과인들은 대기업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합의 각서 작성 후 공증을 거쳤으며 시장 확산 중단 사실이 각종 언론에 보도돼 제일제당은 약속 이행과 관련 국민들의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추후 이런 약속을 어기고 제일제당이 시장 잠식을 재시도 할 경우 부도덕한 업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입게 되는 기업 이미지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제일제당은 합의 각서에 명시한 대로 냉동생지 공급 및 수출에 전념하는 형태로 사업 방향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일제당의 시장 확산 중단으로 인해 이제 우리 제과인들에게는 제일제당이 약속대로 더 이상 점포 확산을 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겨지게 됐다. 또 지난 2월 25일 한국소기업소상공인 전진대회에 참가해 결의를 다진 것처럼 앞으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발생할 경우 다시 힘을 모으는 한편 제과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과제가 남겨지게 됐다. **김지정**

“투쟁을 교훈 삼아 이젠 자체 경쟁력 키워야”



고진곤 투쟁 위원장

비상대책투쟁위원회를 이끈 고진곤·김지정 위원장은 항상 투쟁의 선봉에 있었다. 김지정 위원장은 재벌 기업과 싸워 이겼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투쟁의 의의로 꼽았다. 또 고진곤 위원장도 투쟁 과정에서 제과인이 단결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된 점도 또다른 성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투쟁은 하루 단위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이에 대해 두 위원장은 상대가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할 정도로 몰아 붙여야 우리의 요구 사항을 빨리 관철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빠른 투쟁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제과인에게 감사를 전했다. 합의 각서 교환으로 제일제당의 더 이상



김지정 투쟁 위원장

의 시장 잠식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고진곤·김지정 위원장은 비단 제일제당뿐 아니라 추후 다른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해 생존권을 위협할 경우 제과인들이 다시 결집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투쟁일지-

“제과인의 투쟁, 그리고 승리”

무서운 속도로 점포를 확산하며 시장을 잠식해 온 제일제당에 맞서 투쟁에서 승리한 것은 업계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이번 결과는 제과인의 단결된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제과인의 모습과 단결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투쟁 과정을 사진으로 보는 일지 형식으로 구성했다. <편집자주>



1 제일제당과의 투쟁 결의(99년 12월 2일)

협회는 긴급 이사회에서 제일제당 가맹 사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고진곤 부회장과 김지정 고려당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1월 24일에는 여의도에 비대위 사무국과 사무실을 설치했다.



2 제일제당 규탄 전단지 배포(2월 3~4일)

김지정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직원들은 서울역과 청량리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단지 1만매를 배포했다. 설탕, 밀가루, 식용유를 사용해 자신들의 성장이 있게 한 제과점을 배신하고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제일제당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렸다.



3 플래카드로 불매 운동 전개(2월 7일~14일)

뚜레쥬르의 시장 진출 및 확산에 반대하고 투쟁에 동참한다는 제과인의 의사를 제일제당측에 전달하기 위해 서명 운동 작업에 돌입했다. 또 협회에서 제작된 플래카드를 회원 점포 전면에 부착해 제일제당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4 규탄대회로 투쟁 강도 높여(2월 9일)

500여명이 참가해 제일제당 가맹사업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국민 호소문 낭독, 투쟁 결의문 채택에 이어 명동성당까지 가두 시위를 펼쳤다. 이날 규탄대회를 TV에서 보도해 제일제당과의 투쟁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향후 투쟁에 힘이 실리게 됐다.



5 시장 확산 중단 합의 각서 교환(2월 14일)

2월 12일 드디어 제일제당이 시장 확산을 포기하는 합의안을 제의해 왔다. 이날 양측은 뚜레쥬르를 현 수준인 214개에서 동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어 14일에는 합의 사항 증명을 위한 공증을 마치고 합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6 정기총회에서 투쟁 과정 및 결과 설명(2월 22일)

지난 2월 16일 제일제당의 시장 확산 저지 결과를 지회 및 지부에 알린 데 이어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투쟁 과정을 영상물로 방영하고 투쟁 결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맞서 적극 투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